



(주)대홍

환경보존과 기술개발 바로 대홍의 경영철학

과학적 분석과 신기술의 결정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정책과 투자확대 등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쇄지기 업체는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포장재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분임조 활동, 공정별 품질관리, 무결점운동 등 과학적인 분석과 축적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대홍 패키지는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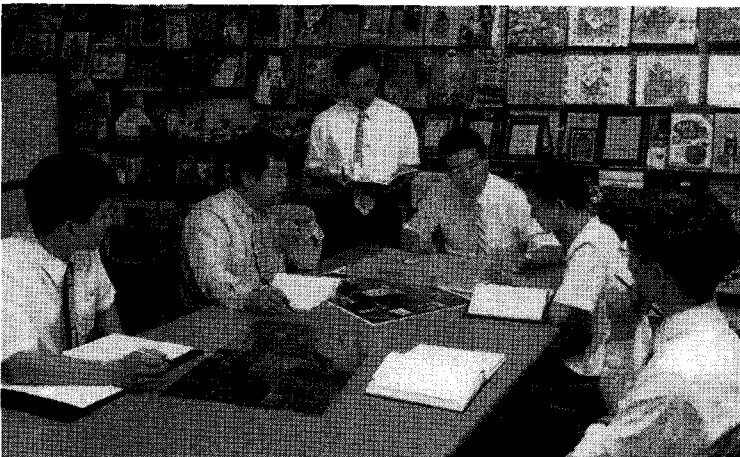
국내의 인쇄포장산업을 대변해 온 (주)대홍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인쇄 포장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도약을 거듭해 왔다.

품질과 인적관리 곧 자원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대홍은 '품질제일주의'를 사명으로 핵심기술 능력 배양과 전사원의 프로화를 통해 고객만족과 제일주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업기획관리부 신남현 부장은 "그 동안의 축적된 기업역량과 경험 및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인쇄 및 포장관련 종합메이커로서 소비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세계적인 인쇄 포장업체로 발전하고자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조디자인에서부터 적정한 재료의 선정, 인쇄, 납품까지의 일관된 모든 공정을 최신식 기계 시스템과 대단위 규모를 갖추고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 (주)대홍은 소비자 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해 매주 분임조 회의를 연다

(주)대흥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과 고급화된 상품을 위해 인쇄효과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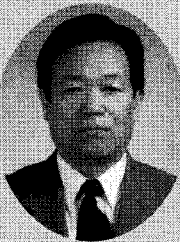
신남현 부장은 특히 “환경친화적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골판지 포장은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는 소재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의 단점 보완에 주력하여 농산물포장 및 제품보호를 강화한 공산품 포장, 패션골판지 등을 생산하여 골판지 포장업체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소비자 취향과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축적된 경험과 독특한 감각을 바탕으로 더욱 세련되고 완벽한 포장의 세계를 연출하여 움직이는 광고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로운 감각의 Roll-Type, Sheet-Type의 (주)대흥 쇼핑백은 좋은 품질로 앞서가는 쇼핑백 제조업체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가고 있다.

조만간 생활자의 시대 도래할 것

소비자들 스스로 판단과 가치관 가져



▲ 민영홍 부사장

“앞으로 제품개발에 있어 상품 이미지 중 중요한 것은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소비자의 시대’가 끝나고 ‘생활자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봅니다. 사람들은 이전 물건을 사고 그것을 사용하여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관과 생활실계를 연출해 내고 있는 생활자인 것입니다.”

40여년간 유통시장에서 발을 굳힌 민영홍 부사장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렇게 내다본다. 더욱 그가 강조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적 개념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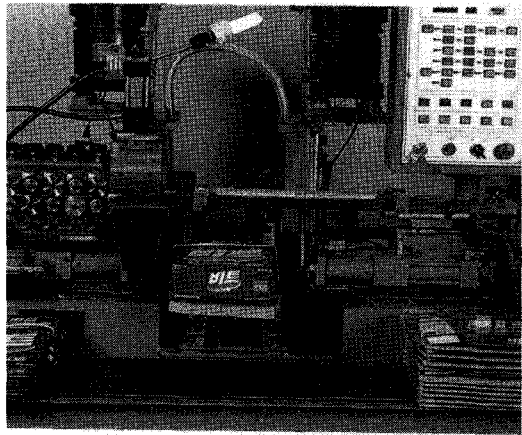
(주)대흥에서 15년간 실무적 위치를 지켜 온 그는 “포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어떠한 선택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을 때에 생산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경험과 지식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대흥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은 평범한 것 같지만 많은 양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포장에 있어 기능성(개봉, 봉합, 보관 및 사용의 편리성), 브랜드의 제고, 소비자들에게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물의 보호 등을 의미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설비는 다양하지 못하지만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대흥은 민 부사장이 강조한 대로 품질과 납기 준수로 승부를 걸고 있다. 작년에 90억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민영홍 부사장은 향후 쇼핑백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그는 끝으로 “동종업계에서의 제값 받기 운동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대흥은 제값 받기 운동에 선도자로서 미래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신뢰와 창조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다양한 제품들이 정교하게 인쇄돼 납품되고 있다



▲ 자동 핸들 저베팅기

인간과 포장문화 조화

24년간 좋은 인쇄와 포장상자를 위해 전념해 온 (주)대흥은 완벽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포장인쇄 분야에서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시키고 있다.

또한 품질의 우수성과 함께 단일공장으로는 대단위 규모를 갖추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기술 개발과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 품질, 신용, 연구 제일의 정신으로 포장인쇄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신식 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된 기술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호흡하며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은 신포장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주)대흥의 의지라고 밝히는 신남현 부장은 기업창달에 앞서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과 포장문화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대흥의 특징이 있다면 단합을 들 수 있다. 여느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대흥에서

는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점점 산업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고 자칫 사람 본연의 모습이 이 물결 속에 파묻혀 기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신 부장은 말한다.

“저희 대흥에서는 대맥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조금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다달이 여가선용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격주로 쉬게 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흥의 모습이고 대흥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동력입니다.”

ISO 인증 획득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대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람관리시스템이었다. ☐

변준섭기자

**광고 및 구독문의
월간 「포장계」 편집부
780-9782**